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조상인식 변화와
그 의미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기 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호섭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조상인식 변화와
그 의미

The change in recognitions of the ancestor appeared in
epitaph of displaced persons of Koguryo and its meaning.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기 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호섭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조상인식 변화와
그 의미

The change in recognitions of the ancestor appeared in
epitaph of displaced persons of Koguryo and its meaning.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기 범

이기범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조상인식 변화와 그 의미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이 기 범

2000년대 이후 중국 낙양과 서안을 중심으로 고구려유민 묘지명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확인된 건만 20건이 넘었다. 각 묘지명은 조상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서술을 담고 있다. 23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상을 고구려계 또는 중국계로 인식하는 비율이다. 자신을 고구려계의 후손으로 인식하는 수는 모두 14건으로 61%이다. 반면 자신을 중국계의 후손으로 인식하는 수는 모두 9건으로 39%이다. 둘째, 시기별 묘지명의 비율과 특징이다. 먼저 고종 대는 4건, 무척천 대는 7건 현종 대는 9건 숙종 이후는 3건이다. 무척천과 현종대에 약 2/3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 시기에 걸쳐 가장 흔히 보이는 형식은 조상의 이름과 관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척천 집권 시기 만들어진 묘지명에서는 이름, 관직 외에도 고구려 시조나 초기 역사 기록에 대한 표현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종 시기에는 중국계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갑자기 대거 등장한다. 현종 시기는 널리 알려진 대로 당나라의 전성기였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묘지명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고구려, 묘지명, 고구려 유민, 무척천, 당현종, 조상인식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조상 인식체계에 따른 가계 서술 형식	4
2.1 고구려계 조상의 구체적 이름 관직이 등장하는 사례와 특징	5
2.2 고구려계 조상의 구체적 이름 관직이 등장하지 않는 사례와 특징	10
2.3 중국계 조상의 사례	11
III. 시기에 따른 서술 형식의 변화	13
3.1 시기별 가계서술 유형	13
3.2 고구려 묘지명에 기록된 조상인식의 보편적 경향	14
3.3 당 황제 재위 기간에 따른 조상인식의 시기별 경향	15
IV. 조상인식 변화를 견인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의미	17
4.1 대내 정치 안정과 국제 질서의 변화	17
4.2 현종 대 보첩의 편찬과 묘지명 내 중국 후예설 등장	20
4.3 당내 유민 사회의 변화와 의미	22
V. 결 론	23

참고문헌	25
------------	----

ABSTRACT	29
----------------	----



표 목 차

<표 1> 조상 인식체계에 따른 가계 서술 유형	4
<표 2> 시기별(고종~숙종 이후) 가계 서술 유형	13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2000년대 이후 중국 각지에서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묘지명이나 탁본이 다수 발견되면서 유민사에 관한 연구¹⁾가 활발해졌다. 유민사 연구자들은 주로 발굴(발견)된 묘지명을 소개²⁾하거나 연구동향을 정리³⁾하고 出身 관련 기록을 토대로 유민의 정체성 변화를 논증⁴⁾하였다. 최근에는 묘지명에 기록된 관직⁵⁾이나 기존 사서 기록과의 관련성⁶⁾에 주목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의 몇몇 흥미로운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사례에서 보이는 현상을 추론을 통해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발견된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이 20여 건이 넘는 이 시점에서 고구려 유민으로 판명 가능한 관련 자료⁷⁾를 모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특히 발견된 묘지명

- 1) 유민의 범위 설정문제는 제27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2014년 2월)에서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다. 본고에서는 묘지명 제작년을 기준 삼아 시점은 고구려 멸망시점인 660년으로 보았다. 다만 종점은 별도로 설정 하지 않았고 내용상 고구려의 후손임을 밝히는 묘지명은 유민 묘지명으로 간주하였다.
- 2)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은 모두 21점인데,淵蓋蘇文의 자손들인 泉氏묘지명이 4점,高氏묘지명이 11점으로 대개 최고위급 지배층의 것이다.洛陽의 邙山에서 泉男生,泉男產,泉獻誠,泉毖등 淵蓋蘇文의 자손들의 묘지명, 高玄묘지명, 高質,高慈父子묘지명, 高欽德,高遠望父子묘지명, 高饒苗묘지명, 高德묘지명, 寶藏王의 자손인 高震묘지명, 王景曜묘지명, 豆善富묘지명, 李懷묘지명이 출토되었다. 高震의 딸인 高氏夫人과 高足西묘지명은 洛陽伊川縣에서 출토되었다. 西安에서는 高饒苗묘지명, 高木廬묘지명, 李仁德묘지명, 李他仁묘지명, 似先義逸묘지명이 발견되거나 출토되었다.(루정호. (2013). 「高句麗遺民 高牟에 대한 考察」.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 3)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4) 최진열.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 『東北亞歷史論叢』 24. 동북아역사재단.
이문기. (2010). 「묘지(墓誌)로 본 재당(在唐) 고구려(高句麗) 유민(遺民) 조선의식(祖先意識)의 변화(變化)」.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 5) 이기천. (2014). 「唐代 高句麗·百濟系 蕃將의 존재양태」.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6) 권덕영. 2012. 「백제_유민_彌氏一族_묘지명에_대한_斷想」. 『史學研究』 105. 한국사학회.
- 7) 최진열. (2015) 『발해 국호 연구』. 「제 1장, 고구려 유민의 본적 표기 검토」. 서강대학교 출판부. 책의 저자는 발견 된 묘지명 중 사선의일(1980년 영태현에서 발견된 북위시대 造像碑에 사선씨 4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선씨는 이미 북위시대에 화북에 살고 있었음. 따라서 사선의일은 고구려인의 후예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고구려 멸망 후 이주된 유민가문으로

중에는 고질과 고자, 고흘덕과 고원망, 고진과 고씨부인 등 부자 또는 부녀로 발견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며 드물게 천남생(천남산)-천현성-천은(미발견)-천비처럼 4대에 걸친 일가의 묘지명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발견된 묘지명은 묘주나 묘주의 조상이 스스로 고국을 배신하고 당조로 귀부한자들의 것이 대다수이다. 또한 묘지명의 내용은 당조로부터 평가 받는데 전거가 되는 행장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만큼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⁸⁾ 오히려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후손들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에 귀부한 각각의 사정과 시기, 방식이 다르므로 묘지명에 대한 개개별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서술의 경향을 주목해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주지하듯 唐은 유민 지배정책인 徙民策으로 고구려인을 집단적으로 본토로 옮긴 후 왕족과 親唐派 귀족 등 일부만 수도에 안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민들은 河南道⁹⁾와 隴右道¹⁰⁾ 등 변경 여러 주의 빈터에 분산, 배치했다. 그 뒤 696년 거란의 반란을 틈타 대조영이 營州에 있던 고구려유민들을 모아 동모산(지금의 돈화)에 이르러 발해를 세웠고 국초부터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했다. 반면 唐에서는 고구려유민들을 전쟁포로로 인식했으므로 그에 대한 지배도 복속민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¹¹⁾ 재당 고구려 유민 역시 이

단정하기 어렵다. p45~47), 이회(증조 李敬이 隨에서 벼슬을 지냈으므로 이회의 가문은 고구려와 전혀 관계가 없음 p47), 두선부(조상이 漢族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北齊의 神武에 패해 고구려로 피난 온 오르도스의 유목민 출신이므로 고구려 혈통이라 보기 어려움 p49) 등 세 사람은 고구려 유민이 확실하지 않음을 들어 제외하였으나 필자는 두선부의 경우 혈통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고구려인으로서 당조에 투항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유민으로 포함시킨다. 또한 『全唐文補遺』에 수록된 劉元貞 또한 고구려 유민으로 포함시켰다. 더불어 2015년 소개된 南單德(장병진, (2015).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2. 고구려발해학회.)을 포함시켰다. 본 논문은 23인의 묘지명을 기준으로 한다.

8) 李成制, (2014).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9) 현재 山東省, 河南省, 江蘇省 北部 安徽省 北部 일대.

10) 현재 甘肅省 일대.

11) 김현숙, (2001).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23. 한국고대사학회.

와 같은 처지 속에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왕모중(?~731), 고선지(?~755), 이정기(733~781) 등 중국 사서에 입전되거나 활동편린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고구려가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8세기 중반 시점까지도 당 사회가 ‘高麗人’ 내지는 ‘高句麗 出身’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당에서 활동한 인물 가운데 ‘高麗人’으로 명기 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¹²⁾ 이는 고구려 유민 묘지명 사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발견된다. 묘지명에 드러나는 고구려 후손이라는 인식이 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묘지명을 통해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연구자들이 주목한 ‘遼東朝鮮人’ ‘國內城人’ 등 출신표현¹³⁾ 보다는 가계서술과 같은 고국이나 조상이 언급된 구체적인 표현이라 생각된다. 묘주의 출신지를 ‘遼東郡 平壤城人’ 등으로 기술한 것은 망자가 어디 소속의 지역 출신임을 밝히는 것으로, ‘都督府+지역’의 기재방식에 따른 것¹⁴⁾일 뿐 유민 후손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국과 조상에 대한 구체적 표현 뿐 아니라 2대 이상의 묘지명이 발견된 가문의 조상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 서술 방식을 기준삼아 현재까지 알려진 23건의 묘지명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당 황제의 재위 기간(고종~숙종 이후)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조상인식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비록 본고는 기 보고된 23건의 자료가 바탕이 되지만 앞으로도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이 속속 발견되어 보다 의미 있는 통계적 분석을 이끌어 낼 만큼의 사례가 축적되길 바란다.

12) 이문기. 앞의 논문. p64.

13) 최진열. 앞의 논문. p 6~10.

14) 李成制. 앞의 논문. p 2.

II. 조상 인식체계에 따른 가계 서술 형식

묘지명은 가계내력, 활약상, 관직, 문학적 표현으로 가득한 사(詞) 등 당대 가장 생생한 자료를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그 중 유민사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계내력과 귀부과정을 포함한 당내 활약상이다. 귀부 후 당내지에서 활약한 유민의 삶은 중국사와 관련 깊다 할 수 있으나 가계내력 만큼은 한국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그 서술의 변화 과정을 일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3기의 고구려 유민 묘지명을 토대로 약 100여년의 시간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구려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는 기존 연구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대상 자료의 수적 한계를 인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인식 체계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표1, 표2)하여 살펴보았다.

[표1] 조상 인식체계에 따른 가계 서술 유형

㉠ 조상을 고구려계로 서술(㉠-1은 구체적 이름, 관직 등 표기 ㉠-2 구체적 이름 관직 미표기)

㉡ 조상을 중국계로 서술

유형		건수 (23건)	비율 (100%)	묘주명(연도는 제작연도임)
㉠	㉠-1	11건	48%	高提昔(674), 李他仁(677), 泉男生(679) 高玄(692), 高質(700), 高慈(700), 泉獻誠(701), 泉男産(702), 泉毖(733), 高欽德(746), 高震(778)
	㉠-2	3건	13%	高鑣苗(673), 高足酉(697), 高牟(699)
㉡		9건	39%	高木盧(730), 李仁德(733), 王景曜(735), 豆善富(741), 高德(742), 劉元貞(744), 高遠望(745), 高氏夫人(772) 南單德(776)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에 앞서 조상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류(표1 선조 인식체계에 따른 가계 서술 유형)해 보았다. 가계 서술은 자신의 가문을 고구려계로 인식하는 경우(㉠유형, 61%)와 중국계로 인식하는 경우(㉡유형,

39%)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형은 다시 조상 이름과 관직을 나열하는 경우(㉠-1)와 조상의 구체적 이름과 관직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2)로 나눌 수 있다.¹⁵⁾ 비율로 보면 유형 ㉠-1이 11건으로 ㉠유형의 71%를 차지한다. 묘지명 전체로 보더라도 48%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이에 반해 ㉠-2는 총 3건이 발견되었다.

2.1 고구려계 조상의 구체적 이름 관직이 등장하는 사례와 특징

조상을 고구려계로 여기는 ㉠유형은 짐작할 수 있듯 가장 흔한 형태이지만 현재 발견된 묘지명의 60%에 불과하다. 발견된 수량을 고려하더라도 스스로를 고구려 후손으로 여기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결과다.¹⁶⁾

㉠유형에는 조상의 구체적 이름과 관직이 등장하는 ㉠-1 유형이 대표적이다. ㉠-1 유형의 서술 내용과 특징을 사례별로 살펴보자.

(사례 ㉠-1-1 - 高提昔 墓誌銘, 674)

… 부인의諱는 提昔이고 본래 國內城사람이다. … 물을 머금은 연못은 아름답고 깊어 아름다운 규방에서 진한 향기를 드러냈다. 증조는 伏仁 大相으로 水境城 道使 遼東城 大首領이다. 조부는 支于로 당나라 易州刺史를 지냈고 長岑縣 開國伯 上柱國이다. 부친은 文協으로 宣威將軍 右衛 高陵府 長上 折衝都尉 上柱國을 지냈다. 지나간 貞觀 年中에 천자께서 이르러 죄를 묻자 조부가 이에 귀복하여, 참된 마음으로 복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귀순하였다. 이에 충성스러운 모의에 상을 주고 청요한 관직을 하사하였다.(하략)

… 夫人諱提昔本國內城人也 … 潢猗湛熊挺芳烈於蘭闥曾祖伏仁大相水境城道使遼東城大首領祖支于唐易州刺史長岑縣開國伯上柱國父文協宣威將軍右衛高陵府長上折衝都尉上柱國往以貞觀年中天臨問罪祖乃歸誠款塞率旅賓庭爰賞忠規載班清級(下略)

(사례 ㉠-1-4 - 高玄 墓誌銘, 692)

15) 유형별 사례는 다시 시간 순서대로 ㉠-1-1, ㉠-1-2 또는 ㉠-1, ㉠-2순으로 정리하였다.

16) 백제 역시 발견된 10기 중 조상의 중국 기원 내용이 담긴 묘지명이 5기(예군, 진법자, 예소사, 난원경, 예인수)에 해당된다. 예군, 예소사, 예인수가 같은 집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고구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묘지명의 수가 고구려 23기, 백제 10기 등으로 많지 않으므로 향후 발견되는 묘지명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군의 이름은 玄이고 자는 貴主로서 요동의 三韓사람이다. ... 공은 올바른 법도에 뜻을 품었고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저 백성들을 버리고 男生을 따라와 교화를 받들었고, 황제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사모하여 동쪽으로부터 옮겨와 귀순하였다. 이로 인하여 西京(장안)을 관향으로 삼고 赤縣에 이름을 올렸다. 曾祖는 高寶로서 本州都督을 지냈고, 할아버지는 高方으로 平壤城 刺史를 지냈으며, 아버지는 高廉으로 당나라에서 泉州 司馬로 추증되었다. 모두 三韓의 귀족으로 누대에 걸쳐 현달하였고, 東夷의 이름난 賢人으로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이렇게 公과 侯가 필시 반복되는 것은 대대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라.(하략)

... 君諱玄字貴主遼東三韓人也 ... 公志懷雅略有先見之明棄彼遺氓男生而仰化慕斯 聖教自東徙而來王因而家貫西京編名赤縣曾祖寶任本州都督祖方任平壤城刺史父廉唐朝贈泉州司馬竝三韓貴族積代簪纓九種名賢蟬聯冠冕公侯必復代有人焉(下略)

먼저 高提昔 墓誌銘(㉠-1-1)과 高玄 墓誌銘(㉠-1-4)에서 보듯 유민 묘지명은 대부분 묘주의 가문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역임한 명문이었다는 것을 칭송하는 내용 또는 曾祖, 祖父, 父 혹은 祖父, 父의 名諱와 역임한 官爵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泉男生 墓誌銘(㉠-1-3)¹⁷⁾, 泉獻誠 墓誌銘(㉠-1-7)¹⁸⁾, 泉愍 墓誌銘(㉠-1-9)¹⁹⁾, 高震 墓誌銘(㉠-1-11)²⁰⁾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런데 같은 가문에서도 조상서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발견된다. 아래 사례 ㉠-1-8에서 보면 보장왕의 사자로 항복을 청했던 淵蓋蘇文의 삼남인 男產의 경우 고구려 건국과 관련 된 기사가 발견된다.

(사례 ㉠-1-8 - 泉男產 墓誌銘, 702)

... 군의 이름은 男產으로 요동 조선 사람이다. 옛날에 東明이 氣를 느끼고 사천(瀝川)을 건너 나라를 열었고, 朱蒙은 해를 품고 淚水에 임해 수도를 열어, 위엄이 해뜨는 곳의 나루에 미치고 세력이 동쪽 지역의 풍속을 제압하였으니 비록 星辰과 바다와 산악이 변방지

17) ... 曾祖父는 子遊이며 祖父는 太祚로서 다 莫離支를 역임하였고, 父 蓋金은 太對盧였었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軍權을 아울러 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하략) (泉男生 墓誌銘, 679)

18) ... 曾祖인 大祚는 本國(高句驪)에서 莫離支에 임용되었으며, 兵權을 장악하여 氣勢가 三韓을 제압하고 명성은 五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祖인 蓋金(蓋蘇文)은 本國에서 太對盧에 임용되고 兵權을 장악하였으며, 아버지가 이어주고 아들이 계승하여 권력을 잡고 총애받음이 두드러졌다. 父인 男生은 本國에서 太對盧에 임용되었으며(하략) (泉獻誠 墓誌銘, 701)

19) ... 증조는 特進 卞國襄公 男生이며, 祖는 左衛大將軍 卞國莊公 獻誠이며, 父는 光祿大夫 衛尉卿 卞國公 隱이다.(하략) (泉愍 墓誌銘, 733)

20) ... 조부인 藏은 開府儀同三司 工部尚書 朝鮮郡王 柳城郡開國公이며 父의 휘는 連으로 雲麾將軍 右豹韜大將軍 安東都護였다. 공은 곧 부여의 貴種이며, 辰韓의 令族이었으나(하략) (高震 墓誌銘, 778)

역에 걸려 있지 않았어도 예절과 詩書는 聲敎에 통하여, 家를 잇고 氏를 받았으니 군은 그 후예이다. 고조와 증조는 中裏의 뛰어난 지위를 이었고 조부와 부친은 對廬의 큰 이름을 전했으며 군은 태어나기 전부터 현명함을 본받았고 임금에게 책명을 받아 조상의 은덕으로 복이 넘쳤다.(하략)

…君諱男產遼東朝鮮人也昔者東明感氣踰瀝川而開國朱蒙孕日臨湍水而開都威漸扶索之津力制蟠桃之俗雖星辰海嶽莫繫於要荒而俎豆詩書有通於聲敎承家命氏君其後也乃高乃曾繼中裏之顯位惟祖惟禰傳對廬之大名君斧囊象賢金冊餘慶生而敏惠勿則過人(下略)

반면 자진해서 투항한 형 남생이나 그 후손인 천현성, 천비의 경우 그 같은 사실은 일절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같은 집안이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묘지명 서술 방향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李他仁의 묘지명에도 ‘주몽’표현이 등장하나 본국 시조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사례 ㉑-1-2 - 李他仁 墓誌銘, 677)

… 군의 이름은 他仁으로 본래는 遼東 柵州 사람이다. … 公의 조부인 福鄒는 本朝의 大兄을 역임하였고, 부친인 孟眞은 本朝의 大相을 역임하였다. … 이때 朱蒙의 遺孽들이 靑丘에서 천명을 받고 고시의 곡진함이 어그러지고 또 계루의 군사를 저지하였다. … 公에게 柵州都督兼總兵馬를 내려 12州 高麗를 관할하고 37部 靺鞨을 통솔하게 하였다.(하략)

… 君諱他仁本遼東柵州人也. … 祖福鄒本朝大兄父孟眞本朝大相. … 于時朱蒙遺孽靑丘誕命既乖桎矢之盡復阻桂樓之兵. … 于時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管一十二州高麗統三十七部靺鞨(下略)

묘지명 내용 중에 “朱蒙遺孽²¹⁾, 靑丘誕命”의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조상을 욕하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여 “묘주는 절대 고구려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며 이타인을 말갈인으로 보는 견해²²⁾도 있다. 그러나 이타인은 자발적으로 당에 귀부한 자로 이후 당에서 순조로운 삶을 살았음을 유추한다면 사후 가족들이 찬자의 인식에 동의했을 수 있다는 주장²³⁾이 제기되어 있다. 사례가 한 건에 불과 하나 조상에 대한 모멸적 표현

21)孽 - 서자 ‘얼’자로 요물, 요괴, 흉악한(골칫거리) 후예, 재앙, 죄악 등의 뜻을 담고 있다.

22)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誌銘考釋」, 『遠望集』, 섬서인민미술출판사. 736~739쪽.

23) 배근홍. (2010). 「당(唐) 이타인(李他仁) 묘지(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忠北史學』 24. 충북대학교 사학회.

은 특이한 경우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말갈족 등 다민족 국가구성원을 보유한 고구려의 특징으로 살펴 볼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중시조격에 해당하는 조상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고질, 고자의 조상인 고밀이 모용연의 침입을 격퇴하고 관직과 高氏를 하사받은 사건을 크게 서술하였다.²⁴⁾

(사례 ㉠-1-5 - 高質 墓誌銘, 700)

... 공의 이름은 質이고 자는 性文으로 요동 조선인이다. 靑丘와 日域의 높이 솟음은 일찍이 엮어져 하늘을 능가하며, 滄海와 谷王의 둘레 근원을 길게 따라 땅을 감싼다. 白狼의 나머지 북으로 기자의 후예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백 후손의 波流가 널리 두루 퍼졌다. 19대조 密²⁵⁾은 후한 말엽에 연나라 군사를 깨치고 본국을 보존시키는데 공로가 있어서 王에 봉해졌지만 세 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따라서 高氏 성과 식읍 3천호를 내리고, 아울러 金文, 鐵券을 내려 “마땅히 高密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승계하게 하여, 저절로 까마귀의 머리가 희게 되고 압록강이 마르지 않으면 승계가 끊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증조부 前은 本蕃에서 3품 位頭大兄에 등용되고, 조부 式은 2품 莫離支에 등용되어 홀로 국정과 병마의 일을 맡았다. 부친 量은 3품 柵城都督, 位頭大兄 및 大相에 등용되었다. 아울러 재주는 영웅호걸을 바랄만 하였고, 올바름은 本蕃을 도울 만하여 명성은 널리 뻗어가 中國에까지 퍼져 들을 수 있었다.(하략)

... 公諱質字性文遼東朝鮮人也靑丘日域聳曾構而凌霄滄海谷王廓長源而繞地白狼餘祉箕子之苗裔寔繁玄驚殊祥河孫之派流彌遠十九代祖密後漢末以破燕軍存本國有功封爲王三讓不受因賜姓高氏 食邑三千戶仍賜金文鐵券曰宜令高密子孫代代承襲自非烏頭白鴨渌竭承襲不絕曾祖前本蕃三品位頭大兄祖式二品莫離支獨知國政及兵馬事父量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并材望雄傑匡翊本蕃 聲芬暢遠播聞中國(下略)

(사례 ㉠-1-6 - 高慈 墓誌銘, 700)

... 공의 이름은 慈이며 자는 智捷으로 조선인이다. 선조가 朱蒙王을 따라 해동의 여러 오랑캐를 평정하여 고구려국을 건설한 이후 대대로 공후재상이 되었다. 후한말에 이르러 고구려는 연의 모용씨와 싸워 크게 패하여 나라가 장차 멸망하려 하였다. 이 때 20대조 密은 분연히 창을 잡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 목을 벤 자가 무척 많았다. 이로 인하여 연군을 파하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 봉을 내려 왕으로 하려 했으나 세 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高氏 성과 식읍 3천호를 내리고, 아울러 金文, 鐵券을 내려 “마땅히 高密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승계하게 하여, 저절로 까마귀의 머리가 희게 되고 압록강이 마르지 않으면 승계가 끊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고구려가 처음 세워진 후부터 나라가 망하

24) 이동훈. (2014).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한국고대사연구』 76. 한국고대사학회.

25) 고밀은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代에 등장하는 신성태수 고노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기까지 708년, 30대동안 대대로 공후장상이 끊어지지 않았다. ... 증조부 무는 본번에서 2품 막리지에 등용되어 홀로 국정을 맡아 지위는 극히 막중하고 임무는 기묘있는 일을 관장하여 방국이 공평무사하였으니 그 높음은 비길 바가 없었다. 조부 양은 3품 책성도독 위두대형에 등용되었고 대상을 겸했다. ... 부 문은 본번에서 3품 위두대형이 되었고 장군을 겸했다.(하략)

... 公諱慈字智捷朝鮮人也先祖隨朱蒙王平海東諸夷建高麗國已後代爲公侯宰相至後漢末高麗與燕慕容戰大敗國幾將滅廿代祖密當提戈獨入斬首尤多因破燕軍重存本國賜封爲王三讓不受因賜姓高食邑三千戶仍賜金文鐵券曰宜令高密子孫代代封侯自非烏頭白鴨綠竭承襲不絕自高麗初立至國破已來七百八年卅餘代代爲公侯將相不絕忠爲令德勇乃義基建社分茅回生祚土無隔遐裔有道斯行況乎地蘊三韓人承八教見危授命轉敗爲功國賴其存享七百之綿祚家嗣其業纂卅之遙基源流契郭樸之占封崇符畢萬之筮禦侮傳諸冀子帶礪施於謀孫此謂立功斯爲不朽曾祖式本蕃任二品莫離支獨知國政位極樞要職典機權邦國是均尊顯莫二祖量本蕃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少稟弓冶長承基構爲方鎮之領袖實屬城之准的父文本蕃任三品位頭大兄兼將軍(下略)

전장에서 전사한 高質, 高慈 부자의 경우는 당 황실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조상의 본국(고구려) 활약을 밝힘에 있어 예우해 준 사례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고흙덕의 묘지명이다. 그의 묘지명은 두 번째 부인이 죽은 후 합장하면서 다시 만들어졌고 찬자는 사위로 집안인물이다. 조상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 이름과 관작을 밝히는 일반적인 사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사례 ㉑-1-10 - 高欽德 墓誌銘, 746)²⁶⁾

... 공은 사람을 몇 번만 가르치면, 역시 곧바로 군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영원장군에서부터 유주부절도 지평로군사를 겸하였으며, 재주는 비장과 부장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만 하였다. 공의 이름은 欽德이고 자는 應休이며 발해인이다. 증조할아버지 瑗은 건안주도독이었고 할아버지 懷는 건안주도독을 세습하였다. 아버지 千은 당나라 좌옥령위중랑이며 공은 선군의 둘째 아들이다.... 그 선군이 王事(전쟁)로 죽으니, 큰 은혜로 보답하여 아들에게 관작을 증직하였다.(하략)

... 公敎人數年亦可以戎也自寧遠將軍制兼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才可爲裨副冠首公諱欽德字應休渤海人也曾祖瑗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父千唐左玉鈴衛中郎公卽先君仲子也 ... 以先君身死王事鴻澤酬汲贈一子官(하략)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아들 고원망의 묘지명과 달리 조상에 대한

26) 고흙덕의 묘지명은 천보 庚戌년에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천보년(742~755)간에는 경술년이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丙戌年(746)의 오기로 본다.

서술에서 중국계 가문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기존의 묘지명을 참고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원래 고희덕의 원 묘지명에는 중국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을 것이며 고희덕 고원망 집안은 중국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2 고구려계 조상의 구체적 이름 관직이 등장하지 않는 사례와 특징

조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직과 이름을 남긴 앞서 열 한개 사례들과 달리 가문을 드높이고 있지만 증조, 조, 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직과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2)도 3건(13%) 확인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일반적인 묘지명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더군다나 백제 유민 묘지명에선 보이지 않고 고구려 묘지명에서만 보이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고구려는 백제와 달리 당과의 전쟁이 단판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隋代부터 누차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분층의 고구려인이 귀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⁷⁾

(사례 ㉠-2-1 - 高饒苗 墓誌銘, 673)

... 군의 이름과 자는 饒苗(생략)이다. 집안은 辰卞에서 존귀했고 명성은 珣琪처럼 두터웠다. 창해를 등지고 천자의 조정을 찾아와 玄風을 우러러 벼슬길에 올랐다. 日碑와 같은 민첩한 판단력을 가졌고 駒支처럼 말솜씨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황제의 융성한 은혜를 두루 입어 관직이 높아져 아득히 높은 데에 이르렀고 文昌과 빛을 나란히 하였으며 뛰어난 이름은 下瀨에서 드러났다.(하략)

... 君諱字遼東人也. 族高辰卞價重珣琪. 背滄海而來王仰. 玄風而入仕. 日碑之聽敏叶駒支之詞令. 故得隆允僞寵服攸歸參遠曜於文昌發奇恩於下瀨嗟呼.(下略)

(사례 ㉠-2-3 - 高牟 墓誌銘, 699)

君의 諱는 牟요 字는 仇이고 安東사람이다. 가문은 진한에서 융성하고 다른 명문의 명예를 모두 압도하였다. 예맥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남겨 평양에서 명망이 높았다. 충성스럽고 용감한 절개를 갖추었으며 무예가 뛰어났다. 장군이 될 만한 능력을 가져 황해 바다를 건

27) 金榮官. (2009). 「高句麗 遺民 高饒苗 墓誌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6. 한국고대사학회.

너서 그 재주를 과시하였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략에 능통하여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여 긴급문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귀순하였다. 雲麾將軍에 제수되어 左領軍衛翊府 中郎將이 되었다. 禁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군대를 거느려서 모략을 발휘하였다. 당나라의 무신이 되어 온화한 바람과 같은 은택 속에 귀화하였다.(하락)

君諱牟字仇安東人也族茂辰韓雄門譽偃傳芳穢陌聲高馬邑忠勇之操侍楷矢之標奇韓師之能跨滄波而逞駿是以早資權略夙稟樞機候青律以輸誠依白囊而獻款授雲麾將軍行左領軍衛翊府中郎將任隆範禁俯蘭錡以申謀位列爪牙仰熏風而飲化(下略)

묘지명의 수식과 달리 고요묘와 고모는 가문을 내세우기 힘든 비교적 한미한 출신으로 짐작되며 결정적인 순간 고국을 배신한 공으로 출세하였고 이것이 묘지명에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래 고족유의 사례처럼 출신이 왕족의 방계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²⁸⁾ 이 경우 조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왜 누락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묘주가 사망한 시점에 선대의 구체적인 사항을 챙길 수 없는 집안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짐작된다.

(사례 ㉑-2-2 - 高足西 墓志銘, 697)

... 공의 이름은 足西이며 자도 足西로서 요동 평양 사람이다. 천자에게 정성을 바쳐 거주함에 마침내 洛州 永昌縣에 가문을 이루었다. 일족은 본래 번성한 가문으로 대대로 이어 현토 땅에 살면서 雄蕃을 홀로 오로지 하였고, 지금은 정성을 바침에 명성이 있었고 천자의 남다른 은총은 특별히 높았다.(하락)

... 公諱足西字足西遼東平壤人也乃效款而住遂家於洛州永昌縣焉族本殷家因生代△△居玄兔獨擅雄蕃今聲△誠

2.3 중국계 조상의 사례

조상을 고구려인으로 여기는 ㉑유형과 달리 조상을 중국인으로 연결시키는

28) 이문기. (2000). 「고구려이민 고족유(高足西) 묘지의 검토」. 『역사교육논집』 26. 역사교육학회.

사례(유형㉔)도 9건(39%)이나 발견되었다. 9건 모두 별건으로 천씨 집안 인물이 3명(泉男生, 泉獻誠, 泉愍), 고질, 고자 부자가 포함된 ㉔-1유형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 묘지명에서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후예설에 대해서는 당대 묘지명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겠지만 부자관계인 高欽德 高遠望의 묘지명에서는 같은 집안이라도 자식 대에 이르러 중국후예설이 등장하고 있음²⁹⁾을 유의해야한다. 이 문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다.



29) 李成制. 앞의 논문. p 164~165.

III. 시기에 따른 서술 형식의 변화

3.1 시기별 가계서술 유형

[표2] 시기별(고종~숙종 이후) 가계 서술 유형

유형	고종 (649~683)	무측천 (690~705)	현종 (712~756)	숙종 이후 (757~)
㉠-1	高提昔(674) 李他仁(677) 泉男生(679)	高玄(692) 高質(700) 高慈(700) 泉獻誠(701) 泉男産(702)	泉毖(733) 高欽德(746)	高震(778)
㉠-2	高饒苗(673)	高足酉(697) 高牟(699)		
㉡			高木盧(730) 李仁德(733) 王景曜(735) 豆善富(741) 高德(742) 劉元貞(744) 高遠望(745)	高氏夫人(772) 南單德(776)

지금껏 발견된 묘지명은 가장 이른 高饒苗(673년)로부터 高震(778)까지 약 100여년의 시간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종 함형 2년(673년)에서 현종 천보 5년(746년)까지 70여 년에 전체의 약 90%에 이르는 20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는 무측천에 의해 왕조가 잠시 무주로 바뀌는 정치의 변화를 겪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종에서 현종에 이르는³⁰⁾ 당조의 융성기로 평가한다. 아직 중종과 예종 연간에 만들어진 묘지명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고종과 무측천, 현종 시기 묘지명에 집중하여 서술형식의 변화를 살펴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시기 묘지명을 검토하며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조상 인식에 있어 전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경향이다. 둘째는 재위 기간에 따른 서술내용의 변화이다. 이 시기 특히 주목할 것은 현종 시기 묘지명

30) 이 시기 당 황제 계보는 고종-중종-예종-무측천(무주)-중종-예종-현종으로 이어진다.

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경향, 즉 조상의 중국후예설 출현이다.

3.2 고구려 묘지명에 기록된 조상인식의 보편적 경향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묘지명은 묘주 사후에 제작되는 것이 상례인 만큼 묘주의 조상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겨진 가족이나 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불어 당대의 묘지명 제작 관습과 찬자 등 제작과정을 담당한 당 관리의 인식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비록 원치 않게 당조에 투항했을지라도 그 후손인 유민 2, 3세가 조국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새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상의 고구려 내 활약에 대해서도 역임했던 관직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식의 표현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발견된 묘지명의 경향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고종부터 현종에 이르기 까지 전 시대에 걸쳐 묘지명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바로 이와 같은 가계 서술 방식(㉑-1 유형)이다. 이는 고구려 멸망 후 100~200년이 지나 제작된 高震(773)의 묘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 고구려 최고위직이었던 泉氏집안의 泉男生(679) 泉獻誠(701) 泉毖(733) 이 집안과 혼인 한 것으로 보이는 高提昔(674) 천남생을 따라 당조에 투항한 高玄(692), 현종 대 사망한 高欽德(746)의 묘지명은 집안의 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조상을 기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증조는 伏仁 大相으로 水境城 道使 遼東城 大首領이다. 조부는 支于로 당나라 易州刺史를 지냈고 長岑縣 開國伯 上柱國이다. 부친은 文協으로 宣威將軍 右衛, 高陵府 長上 折衝都尉 上柱國을 지냈다. (高提昔 墓誌銘, 674)

曾祖伏仁大相水境城道使遼東城大首領祖支于唐易州刺史長岑縣開國伯上柱國父文協宣威將軍右衛高陵府長上折衝都尉上柱國(高提昔 墓誌銘)

曾祖父는 子遊이며 祖父는 太祚로서 大莫離支를 역임하였고, 父 蓋金은 太對盧였었

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軍權을 아울러 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泉男生 墓誌銘, 679)

曾祖子遊祖太祚竝任莫離支父蓋金任太對盧乃祖乃父良治良弓竝執兵鈴威專國柄(泉男生 墓誌銘)

증조할아버지 琰은 건안주도독이었고 할아버지 懷는 건안주도독을 세습하였다. 아버지 千은 당나라 좌옥령위중랑이며 공은 선군의 둘째 아들이다.(高欽德 墓誌銘, 733)

曾祖琰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父千唐左玉鈴衛中郎公即先君仲子也(高欽德 墓誌銘)

이 같은 사례를 생각할 때 이후 발견되는 묘지명에서도 같은 유형의 표현이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3 당 황제 재위 기간에 따른 조상인식의 시기별 경향

고구려 멸망에 직접 관련한 고종시기 묘지명은 발견된 수량(4기)이 적지만 대체로 조상의 휘명과 관작만을 밝히는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타인의 경우에만 묘지명 일부에서 고구려의 후손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왔을 뿐이다.

이에 비해 고구려의 건국이나 초기 역사적 기록이 담긴 표현은 무척천이 집권한 무주시기에 주로 발견되는 주목할 현상이다. 이는 고종 대와 달리 이민족을 중용하고 인재를 끊임없이 발굴했던 시기적 특징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고질, 고자의 경우 거란과의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기 전까지 토번, 토욕혼, 돌궐 등의 정벌에 참여하며 무척천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 만큼 그들의 출신지인 고구려에 대한 기사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이들 보다 4년 후 사망한 천남산의 묘지명에도 고구려에 대한 건국 기사가 보이는 점으로 보아 무척천 시기 재당 고구려유민에 대한 위무 차원에서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례가 적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후 발견되는 무척천 시기 묘지명을 통해 시기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시기별 경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기는 현종대이다. 처음으로 조상의 중국

후예설이 등장할 뿐 아니라 수량에 있어서도 7건으로 이 시기 발견된 묘지명(9건)의 80%에 달한다. 그러므로 현종 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후예설은 고구려를 본국으로 여기던 관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 속에 깃든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V. 조상인식 변화를 견인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의미

4.1 대내 정치 안정과 국제질서의 변화

본국을 고구려로 여기고 고구려의 후손임을 밝히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현종 개원연간(712~740)이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중국후예설’이 갑자기 그것도 대거 등장하였다. 묘지명이 세워진 시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高木盧(730) 李仁德(733) 王景曜(735) 豆善富(741) 高德(742) 劉元貞(744) 高遠望(745) 高氏夫人(772) 南單德(776)

772년 만들어진 고씨부인 묘지명과 776년 제작된 남단덕의 묘지명을 제외하면 모두 현종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묘지명이 고구려 대표 성씨인 高氏나 연개소문 일가의 것이었다면 현종연간에는 王景曜 劉元貞 李仁德 등 중국계열 성씨가 나타난다. 그들은 조상의 출신이나 조상이 고구려로 이동했던 상황을 밝혀 놓았다.³¹⁾ 하지만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 高木盧, 高德, 高遠

31) ... 그 선조는 樂浪望族이다. 요임금의 신하 馬씨와 주나라 사관 龍씨 같은 부류로부터 진실한 후예들이 먼 지방에 흩어져 성씨를 보전하여 여러 세대를 전하였다.(하략) (사례 ㉔-2 - 李仁德 墓誌銘, 733)

... 그 선조는 太原人이다. 옛날 쩌나라 말기에 거위가 땅에서 나오자, 공의 먼 할아버지께서 海東으로 피난하였다.(하략) (사례 ㉔-3 - 王景曜 墓誌銘, 735)

... 그 선조는 부풍군 평릉현 사람이다. 18세조 統은 漢나라 안문태수였는데 문무의 난을 피해 일족을 거느리고 북쪽의 들판으로 도망하니, 자손들은 대대로 북쪽 들판에 살았다. 후위가 나천할 때 흘룡두씨라는 성시를 하사받았다. 6세조 보변은 서위의 장수였는데 하곡을 지켰다. 북제의 신무에게 격파되어 드디어 遼海로 달아났으며 후손들은 요해에 정착하였다.(하략) (사례 ㉔-4 - 豆善富 墓誌銘, 741)

... 그 선조는 東平憲王에게서 나왔다. 뒤에 8대조 軒은 북연에서 벼슬을 하여 박사낭중이 되었다가 죽었다. 자손은 燕을 따라 遼로 옮겨갔다. 할아버지 婁는 요에 기탁하여 褥薩이 되었는데 중국의 장군으로 볼 수 있다.(하략) (사례 ㉔-6 - 劉元貞 墓誌銘, 744)

望 등은 고구려의 주성인 高氏 임에도 주, 연, 은 등 한대 이전 왕조의 전설적인 인물들과 조상을 연결시켰다. 그런데 조상의 정착과정이 추상적이고 중시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동 경로 역시 사료 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는 먼 조상을 중국계로 변모시키려는 전략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사례 ㉔-1 - 高木盧 墓誌銘, 730)

... 휘는 木盧이며 발해 수인 출신이다. 과거 그의 조상이었던 태공은 주왕조를 보좌하였다. 왕업을 열었기 때문에 東齊지역의 작위를 수여 받았다. 이후 각 왕조에서 아주 부귀영화로웠는데 7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전화의 찬탈을 겪게 되어 기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선생의 먼 조상은 바닷가로 피난하였는데 우리 당왕조에 이르러 발해 연안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이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머리를 들어 멀리 바라보고 하늘 뜰에 들어섰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품덕을 수양하였다.(하략)

... 諱木盧渤海僭人也昔太公輔周肇開王業天眷錫命受封東齊鍾鼎玉食七百餘載後遇田和篡奪分居荒裔君之遠祖避難海隅暨我皇唐大敷淳化君乃越溟渤歸桑梓遂驤首雲路厠跡天庭樞典六閑職司三物(下略)

(사례 ㉔-5 - 高德 墓誌銘, 742)

... 부군의 이름은 德이고 자는 元光이다. 그 선조는 발해인이다. 漸離의 후예가 말 다섯으로 강을 건너는데, 한 쌍의 거위가 땅을 떠나듯 부군의 선대는 요양으로 피난하여 요양의 세족이 되었다. (하략)

... 府君諱德字元光其先渤海人也漸離之後自五馬浮江雙鵝出地府君先代避難遼陽因爲遼陽△族(하략)

특히 선조가 殷나라 사람임을 밝힌 高遠望의 경우 부친 고희덕의 묘지명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사례 ㉔-7 - 高遠望 墓誌銘, 745)

... 군의 이름은 遠望이고 자는 幼敏이며 선조는 은나라 사람이다. 당시 군주가 주색에 빠져 폭정을 일삼으며 간악한 신하는 높여 신뢰하고 간언하여 보필하는 신하는 적대하고 학대하였다. 비간이 충성으로 간언하다 죽자, 그 아들이 나라를 떠나서 이로 인해 요동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 발해 고씨는 그 종맹인데 일부가 고비사막의 남쪽에 머물렀다. 증조 할아버지 懷는 당나라의 운마장군 건안주 도독이었고 할아버지 千은 당나라 좌옥령중랑으로 건안주도독을 세습하였다. 아버지 欽德은 건안주도독을 세습하고 우무위장군 유주부절

... 옛 魯國의 大夫인 蒯의 후손이자, 南容의 후예이다.(하략) (사례 ㉔-9 - 南單德 墓誌銘, 776)

도 지평로군사로서 높은 관직을 대대로 계승하였다.(하략)

…君諱遠望字幼敏先殷人也時主荒湏攻惟暴政崇信奸回賊虐諫輔比干忠諫而死故其子去國因家于遼東焉 … 渤海高氏則其宗盟或留於漠南曾祖懷唐雲摩將軍建安州都督祖千唐左玉鈴衛中郎襲爵建安州都督父欽德襲建州都督皇右武衛將軍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承世簪組(下略)

(사례 ㉠-1-10 - 高欽德 墓誌銘, 746)

… 공은 사람을 몇 번만 가르치면, 역시 곧바로 군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영원장군에서부터 유주부절도 지평로군사를 겸하였으며, 재주는 비장과 부장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만 하였다. 공의 이름은 欽德이고 자는 應休이며 발해인이다. 증조할아버지 瑗은 건안주도독이었고 할아버지 懷는 건안주도독을 세습하였다. 아버지 千은 당나라 좌옥령위중랑이며 공은 선군의 둘째 아들이다. … 그 선군이 王事(전쟁)로 죽으니, 큰 은혜로 보답하여 아들에게 관직을 증직하였다.(하략)

… 公教人數年亦可以戎也自寧遠將軍制兼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才可爲裨副冠首公諱欽德字應休渤海人也曾祖瑗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父千唐左玉鈴衛中郎公即先君仲子也 … 以先君身死王事鴻澤酬汲贈一子官(하략)

이는 단순히 누락 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유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집안을 중국계로 변모시키려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고씨부인 사례에서 더욱 확실해 진다.

(사례 ㉠-8 - 高氏夫人 墓誌銘, 772)

… 부인의 성은 고씨이고 발해사람이다. 제나라의 후예로서 큰 가문이 대대로 전해 온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 가보에 상세하므로 여기서는 갖추어 소개할 필요가 없다. 증조는 조선왕으로 책봉되었으며 조의 휘는 連으로 조선군왕에 봉해졌고, 부는 震으로 定州別駕이다.(하략)

… 夫人姓高氏渤海人也齊之諸裔也著令族世傳家諱詳矣此無備焉曾祖皇朝鮮王祖諱連皇封朝鮮郡王父震定州別駕(下略)

고씨부인은 보장왕의 직계 후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묘지명의 첫머리에 제나라의 후손으로 자임하고 있다. 발견된 묘지명의 건수(9건, 39%)로 보았을 때³²⁾ 조상인식에 변화가 일어난 일은 단순히 개인이나 몇몇 집안의 일

이라기보다는 유민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문헌 기록과도 부합되는 일이다.

그럼 왜 이와 같은 변화가 현종연간에 나타난 것일까? 그것은 1차적으로 대내외적 정치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開元의 治'로 대변되는 현종연간은 사회문화적으로는 盛唐시대를 열어간 시점이며 재상정치를 통해 무척전 시기를 전후한 정치혼란을 마감한 때이기도 하다.³³⁾ 대외적으로는 북방민족의 맹주격인 돌궐이 무너지고 거란의 세가 약해졌으며 732년 등주 공격 이후 소원해졌던 발해와의 친선이 회복되면서 당과 주변국의 관계는 안정기로 접어들었다.³⁴⁾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역시 최전성기로 대내외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환경은 멸망한 고구려의 존재를 더욱 빠르게 지워갔을 것이다.

더불어 이민족이 당 상류사회에 진출하는 통로였던 군공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당 내 이민족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내외적 안정은 고구려 유민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4.2 현종 대 보첩의 편찬과 묘지명 내 중국 후예설 등장

唐朝는 태종, 고종, 현종 대 3차에 걸쳐 전국 氏族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로 譜牒을 편찬하였다.

정관6년(632) 태종의 명에 의해 高士廉 등이 편찬한 『氏族志』는 293姓 1651家を 9等으로 등제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山東 舊士族으로 대표되는 기

32) 현종 대 이후로 본다면 전체 건수의 75%에 해당한다.

33) 개원의 치를 잘 표현해주는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황하는 푸르고 바다는 편안하였다. 물자는 俗阜에서 풍성하였다. 좌우의 창고에는 재물이 산처럼 쌓였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굶지 않았고, 여행객은 여분의 식량을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開元의 治世 동안 皇帝는 理를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았고 또한 재보(재상)를 뽑는데 주의를 기울였다.”(明皇雜錄, 上)

34) 권은주. (2012). 「발해 무왕대 영역확장과 북방정세 변동」 『고구려발해연구』 47. 고구려발해학회.

존의 舊士族의 聲望이 당조의 창업군신인 關隴集團이나 신임관료 가문보다 더 높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태종의 의도와 달리 史傳을 의거하여 가문의 진위를 가리거나 새로운 가문보다는 기존의 가문을 먼저 올리는(退新門 進舊望) 등의 원칙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氏族志』는 舊士族을 존중하는 원칙 속에 편찬되었다.³⁵⁾

『氏族志』 편찬 21년 후인 顯慶4년(659) 武后 등의 가계가 누락된 것을 계기로 『姓氏錄』을 편찬하였다. 총 245姓 2287家が 수록된 『姓氏錄』은 전통적 기준 보다는 현재의 관품을 보다 중요시 여겨 관직이 없는 舊士族은 완전히 배제되고 군공에 의해 5품 훈관을 획득한 庶民은 士流에 편입될 수 있었다. 노골적인 정치목적 하에 편찬되어 당대에도 ‘勳格’이라 비난받았다.³⁶⁾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고구려 유민에게 커다란 기회였을 것이다. 697년 전사한 고질과 고자의 사례처럼 군공은 고구려 유민이 공식적으로 당조의 사류에 편입 될 효과적인 기회였기 때문이다.

개원2년(714)에 편찬된 『氏族系錄』은 무후 정권에 대한 반동으로 성립되어 舊士族 위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 하지만 당조에서 入仕한 家系에 대한 우대정책은 일관되었다.³⁷⁾

3차에 걸친 보첩의 편찬은 구사족의 과도한 사회적 지위의 통제 차원이었고 당조가 부여한 冠冕의 권위를 존중케 하여 정치사회적 지위의 일치를 꾀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종대 『氏族系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차원의 마무리는 곧 민간 차원의 시작으로 연결되었다. 둔황에서 발견된 여러 郡望表 사본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모두 天寶年間(742) 이후에 필사되어 유포되었다. 각 지역에서 성장한 신흥세력, 서민지주 등이 自家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군망을 중시했다.³⁸⁾

현종 대에 이르러 조상을 중국계로 표현한 고구려 유민 묘지명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보첩제의 완성과 무관치 않다. 정치사회적 질서의 완성은 유민 출신인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론지어야 되는 현실적 압박이었

35) 정순모. (1999). 「당대 보첩의 편찬과 변천」. 『중국사연구』 6. 중국사학회.

36) 정순모. 앞의 논문. p 196~198.

37) 정순모. 앞의 논문 p 199~202.

38) 정순모. 앞의 논문 p 202~217.

다. 실제 중국계 고구려 유민들은 적극적으로 가계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高遠望과 高氏夫人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계로 자임하는 가계의 변화가 이 시기 등장한 것³⁹⁾이다.

4.3 당내 유민 사회의 변화와 의미

현종연간 고구려 유민은 세대교체를 통해 당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730년대는 이미 고구려가 멸망한지 6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유민 1세대 및 1.5세대는 사라지고 당에서 태어난 유민 2세대를 대신 해 3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시기였다. 중국인과의 결혼이 늘면서 혈연의 친연성도 점차 열어져 갔다. 왕모중, 고선지 등 명망있는 고구려 유민 개개인의 영욕은 있었지만 그들은 ‘고구려 계승인식’을 매개로 이렇다 할 유민 사회를 건설하거나 강력한 정치, 사회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8세기 중후반 고구려 유민 후손인 이정기 일가가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濟 역시 고구려 계승인식이 바탕이 되어 건국되었다 단정하기 힘들다.

결국 당의 성세와 안정은 망국의 유민 3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당에서의 삶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민들의 인식변화는 묘지명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듯하다. 유민 3세대부터 이와 같은 ‘당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유민 사회 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8세기 중반 개원연간을 기점으로 채당 유민사회 내의 ‘고구려인 정체성’은 자발적이고 본격적으로 해체된 것이다.⁴⁰⁾

39) 이는 백제 묘지명에서도 그 사례가 발견된다. 예식진 묘지명(672)에서 나오지 않던 중국계 조상에 대한 언급이 아들 예소사 묘지명(708)과 손자 예인수 묘지명(750)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비록 시기적으로 예소사의 묘지명이 중종대인 708년에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보첩 작업인 『姓族系錄』이 한 해 앞선 707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예씨 집안의 사례도 당대 사회적 경향성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40) 일본으로 건너 간 고구려 유민의 후손 福信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이문기, 앞의 논문 p.32~33)

V. 결 론

묘지명에 나타난 가계내력은 후손들이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2장에서 살핀 것처럼 자신을 고구려계로 인식하는 집안과 중국계로 인식하는 집안으로 크게 대별되며 비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았다. 고구려가 다민족 구성원을 보유한 국가였다 할지라도 조상을 중국계로 여기는 후손이 ‘뜻밖’에 많았다. 같은 고구려계 후손임에도 몇몇 묘지명은 이례적으로 조상의 이름이나 관직을 전혀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타인 묘지명처럼 조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계 서술형식을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 본 3장에 따르면 고종, 무척천, 현종, 숙종이후의 특징이 시기별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조상의 이름과 관직을 전하는 사례가 전 시기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양식이었다. 무척천 시기는 고구려 시조나 초기 역사기록의 편린이 묘지명에 자주 등장하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묘지명에서 가장 주목할 시기는 당의 전성기였던 현종시기였다. 처음으로 자신이 중국계 후손임을 밝히는 묘지명이 등장하였다. 문제는 현종시기 제작된 묘지명의 대부분이 이 같이 조상을 중국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4장에서 밝힌 것처럼 현종시기 대내적 정치 안정과 국제질서의 변화가 이 같은 변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에 걸친 보첩의 편찬이 현종시기 완성되면서 고구려 유민 3~4세대들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자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고씨부인과 고원망의 묘지명 등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의 이유를 찾는 것은 때로 뜻밖의 일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당나라로 간 고구려 유민들은 시간이 지났으니 중국화 되었을 것이라는 말에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져 본 본연구의 시작이 그러했다. 멸망한 후에도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일단은 발해라는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보기도 했던 고구려인들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특히 묘지명을 남길 정도

의 유민은 고구려 지배층이었을 테니 그들의 현실적 선택의 과정이 묘지명에 얼마만큼 드러날까 싶었다. 23기의 고구려 유민 묘지명은 사료가 부족했던 고대사 연구자들에게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던져 주었다. 또한 내 물음에도 어느 정도 답해 주었다. 절반의 묘지명은 100여 년의 시기에 걸쳐 자신의 출자가 고구려계임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묘지명은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출자를 중국계로 밝히고 있다. 조상을 중국계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현종 대 라는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보첩 완성이라는 당조의 과업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였다. 정치사회적 완성을 본 엄연한 當代의 현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유민사회의 고구려 흔적 지우기로 이어졌고 자발적으로 집안의 계보를 중국화 시켜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정치적 안정기가 도래한 8세기 중반이 그 절정기였다. 본 연구가 진행 될 무렵 고대사 연구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에 대한 충고를 들었다. 사례수가 적음에도 일반화를 하거나 경향성을 파악하려 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부족한 사료와 묘지명 등 문자자료의 더딘 발견은 성급하더라도 일단의 주장을 펼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때로는 적은 자료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도표화 하다보면 주목할 사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다행히도 연구가 마무리 될 무렵 소개된 남단덕의 묘지명은 본 연구자의 믿음에 힘을 보태주었다. 앞으로 고구려 유민 묘지명이 소개 될 때마다 무척 천과 현종대의 특징으로 주목한 내용들이 더욱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각들이 나타나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연구자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연구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삼국유사』 , 『삼국사기』 , 『구당서』 , 『신당서』 , 『자치통감』 ,
『태평광기』

2. 금석문

高饒苗 墓誌銘

高提昔 墓誌銘

李他仁 墓誌銘

泉男生 墓誌銘

高玄 墓誌銘

高足酉 墓誌銘

高牟 墓誌銘

高質 墓誌銘

高慈 墓誌銘

泉獻誠 墓誌銘

泉男産 墓誌銘

高木盧 墓誌銘

泉怱 墓誌銘

李仁德 墓誌銘

王景曜 墓誌銘

豆善富 墓誌銘

高德 墓誌銘

劉元貞 墓誌銘

高遠望 墓誌銘

高欽德 墓誌銘

高氏夫人 墓誌銘

南單德 墓誌銘

高震 墓誌銘

3. 국내 논문 및 서적

권덕영. (2014).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권은주. (2012). 「발해 무왕대 영역확장과 북방정세 변동」 『고구려발해연구』 47. 고구려발해학회.

金榮官. (2009). 「高句麗 遺民 高饒苗 墓誌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6. 한국고대사학회.

김영관. (2013). 「高句麗 遺民 高提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 97. 백산학회.

김현숙. (2001).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23. 한국고대사학회.

루정호. (2013). 「高句麗遺民 高牟에 대한 考察」.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박승범. (2008).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고구려발해학회.

박한제. (2014).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 · 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배근홍. (2001). 「고구려 유민 고족유(高足酉) 묘지명(墓志銘)」. 『中國史研究』 12. 중국사학회.

배근홍. (2009). 「고구려(高句麗) 유민(遺民) 고성문(高性文), 고자(高慈) 부

- 자(父子) 묘지(墓誌)의 고증(考證)」. 『忠北史學』 22. 忠北大學校 史學會.
- 배근홍. (2010). 「당(唐) 이타인(李他仁) 묘지(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忠北史學』 24. 충북대학교 사학회.
- 송기호. (2007). 「정옥자선생정년기념호(鄭玉子先生停年紀念號) : 자료소개 ; 고구려 유민 고씨부인(高氏夫人) 묘지명(墓誌銘)」. 『韓國史論』 5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목간과 문자』 11. 한국목간학회.
- 윤용구.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 · 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이기천. (2014). 「唐代 高句麗 · 百濟系 蕃將의 존재양태」.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이동훈. (2008). 「高句麗遺民 『高德墓誌銘』」. 『한국사학보』 31. 고려사학회.
- 이동훈. (2014). 「高句麗 · 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한국고대사연구』 76. 한국고대사학회.
- 이문기. (2000). 「고구려이민 고족유(高足酉) 묘지의 검토」. 『역사교육논집』 26. 역사교육학회.
- 이문기. (2010). 「묘지(墓誌)로 본 재당(在唐) 고구려(高句麗) 유민(遺民) 조선의식(祖先意識)의 변화(變化)」.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 李丙燾. (1964).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 『진단학보』. 진단학회.
- 李成制. (2014). 「高句麗 · 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이형구. (2012). 『한국 고대 문화의 비밀』 . 새녘.
- 정순모 (1999). 「당대 보첩의 편찬과 변천」 . 『중국사연구』 6. 중국사학회.
- 최진열.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の 正體性」 . 『東北亞歷史論叢』 24. 동북아역사재단.
- 최진열. (2015). 『발해 국호 연구』 . 서강대학교출판부.



ABSTRACT

The change in recognitions of the ancestor appeared in epitaph of displaced persons of Koguryo and its meaning.

Lee, Ki-Beom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ince 2000, a number of epitaphs of Koguryo's displaced persons has been found one after another around Luoyang and Xian in China, and the number of the epitaph is now over twenty. And each epitaph has a certain degree of description about ancestors. This essay will examine the features of the descriptions on those epitaph in two ways based on 23 cases.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ratio of cases that recognize themselves as Koguryo people or as Chinese. In 14 cases, which is up to 61%, it seems that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descendent of Koguryo people. On the other hand. In 9 cases, which is up to 39%,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descendent of Chinese. Second, time-specific ratio and features of epitaph. There are 4 cases in Gaozong(Tang) period, 7 cases in Wuhou Zetian period, 9 cases in Xuanzong(Tang) period, and 3 cases after Suzong(Tang) period. About 66% of the cases are mainly from Wuhou Zetian and Xuanzong(Tang) period. And there are three time-specific features. First, in most common cases throughout all ages, epitaphs describe a name and government position of ancestors in detail.

Second, epitaph that is made in Wuhou Zetian—ruling period shows some informations about the founder of Koguryo and historical documents of early days in addition to just the name and government position. And last, in Xuanzong(Tang) period , we can see lots of expressions that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descendents of Chinese. As we know, Xuanzong(Tang) period was golden age of Tang Dynasty. So displaced persons of Koguryo had tried to be Chinese for better life, and I can say that those phenomenon appears on epitaphs.

keywords: Koguryo, epitaph, displaced persons of Koguryo, Wuhou Zetian, Xuanzong(Tang), recognition of ancestors

